

금삼겹·금달걀... 수입쇠고기 값도 '깡충'

행락철 공급 달려 축산물 가격 고공행진

수입쇠고기 물가지수 10년만에 120 넘겨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삼겹살과 쇠고기 등 고깃값이 계속 오르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달 축산물 물가지수는 110.81로 2011년 9월의 111.6 이후 2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축산물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9% 상승했다. 3월과 4월의 작년동월대비 증가율도 14.1%로 나타나 3개월 연속으로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축산물 가격 고공행진에는 수입 쇠고기 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수입 쇠고기 물가지수는 1월 121.06, 2월 124.38, 3월 121.76, 4월 122.83, 5월 121.89로 연이어 120을 웃돌고 있다.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수입 쇠고기 물가지수가 120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실제로 4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판매되

축산물 물가지수

국산·수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꿀의 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기준연도인 2010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는 한우불고기의 경우 100g 기준, 2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00원에서 13.6% 올랐으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호주산 쇠고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60원(100g 기준)에서 2680원으로 71.8%나 뛰었다.

돼지고기 가격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21.14로 2012년 7월 121.91 이후 제일 높았다. 상승률도 가팔라서 1년 전에 비해 22.1%나 올랐다.

오름폭이 가장 큰 국산 삼겹살(냉동 100g 기준)은 광주 양동시장에서 1900원에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0원(26.7%) 올랐다. 대형마트에서는 지난해 1700원보다 360원(21.2%) 오른 2060원에 거래됐



최근 고깃값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소비자 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사진은 백화점 정육코너.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다. 수입산 삼겹살(미국산 냉동 100g 기준)의 경우 양동시장 판매가 기준으로 50원이 오른 900원에 판매됐다.

달걀은 지난달 물가지수가 130.19였다. 130을 넘긴 것은 올해 1월의 130.49가 처음이다. 올해 들어 달걀값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닭고기도 가격이 올랐으나 오름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난달 닭고기 가격은 작년 같은 달보다 7.0% 올라 물가지수 109.

03을 나타냈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요즘은 행락철이라 고기 수요가 많아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시기"라며 "지난해 공급이 많아 축산물 가격이 낮았던 탓에 올해 더 가격이 오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입 쇠고기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쇠고기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쌀 자급률 4년만에 90% 돌파

수입량 더하면 공급 초과

■ 쌀 자급률 추이

(단위: %)

지난해 벼 풍작으로 2014년 쌀 자급률이 4년 만에 90%대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14년 양곡연도(2013년 11월~2014년 10월) 쌀 자급률이 92%로, 4년 만에 쌀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쌀시장 개방을 유예해 주는 대가로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까지 합하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최소수입물량은 올해 40만 9000t으로 2013년 기준 국내 쌀 소비량 450만t의 9% 수준이다. 쌀 자급률이 91%를 넘을 경우 공급 초과 상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식량 주권과 농민 반발 등을 내세워 쌀 개방 시기를 2014년까지 유예하는 대신 매년 2만347t씩 쌀 수입량을 늘려왔다. 지난 1995년 5만1000t이었던 쌀 수입량이 2004년 20만5000t, 2009년엔 30만7000t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40만9000t에 달한다. 더욱이 올 하반기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벌여야 하

는데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MMA 물량을 최소 현재의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우리나라 외에 유일하게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필리핀이 개방 시기 추가 유예 조건으로 MMA 물량을 배 이상 제시했지만 WTO로부터 거절 당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쌀 개방을 추가 유예해 MMA 물량이 대폭 확대될 경우 쌀 생산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쌀 생산량을 ha당 5t 정도로 보면 재배면적을 8만ha에서 12만ha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8만ha는 충북 전체 비경작면적의 배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브라질월드컵 차량 1700대 지원

현대·기아자동차는 3일(현지시간)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상파울루 아레나에서 대회 공식 차량을 조직위원회에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현대·기아차는 대회 운영에 필요한 승용차 및 승합차 총 1700여대를 지원한다. <현대·기아차 제공>

광주·전남 5월 주식거래량·거래 대금 감소

경상주지속예에 따른 원화 강세와 하반기 주가 상승폭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주식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5월 중 주식거래량은 2억6677만주로, 전월 3억2246만주보다 5569만주(17.27%) 감소했다.

거래대금도 2조2908억원에서 1조8163억원으로 4746억원(20.72%) 줄었다. 단 순매수량은 60만주에서 112만주로 52만주 늘었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다소 하

락, 거래량은 2.31%(4월 2.40%), 거래대금은 1.54%(4월 1.67%)에 달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신일산업, 남산알미늄, KODEX레퍼리치, 팬오션, KODEX200 순이고, 코스닥은 키어스트, CU전자, 리노스, 국제디와이, 코리아나, 코엔텍, 큐로컴 순이었다.

거래 대금은 코스피의 경우 KODEX 레퍼리치 삼성전자, NAVER, 현대차, 삼성중공업, 코스닥은 키어스트, 셀트리온, 홈플러스, 다음, 위메이드, 잼박스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T, '올레 집전화 무한요금제' 출시

유무선 결합 대상 확대

KT가 집전화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올레 집전화 무한요금제'를 출시하고 유무선 결합 대상을 확대한다. 3일 KT에 따르면 이 요금제는 통신사

구분없이 인터넷전화를 포함해 유선 간 통화를 월 3000분(500시간)까지 제공하는 '홈한 3000'(5500원)과 월 3000분 분량에 유선전화는 물론 KT 휴대전화로의 통화까지 포함한 '소호한 3000'(7500원) 등 두 종류가 있다.

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가는 요금(10초당 14.5원)을 감안하면 월 최대 26만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라는 게 KT측 설명이다.

한편 KT는 LTE 가입 고객에 한해 인터넷을 최대 무료로 제공하는 결합상품인 '인터넷 뚱치면 올레'의 대상을 3G 가입자로 확대했다. 또 결합 가입 처리 시 가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가족 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결합된 모바일 서비스 납부자와 유선상품 명의자가 같으면 가족증빙서류 없이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다. KT 마케팅부문 국악현 마케팅전략부장은 "결합 대상 확대와 가족증빙서류 면제 등을 시작으로 고객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텀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